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집회 시간에는 감사찬양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11월 7일(목) 오전 10시에 교회 김치를 담급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유전자조작식품, 육식, 식품첨가물을 주제로 한 환경세미나가 11월 16일(토)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각 선교회장이나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동면교회에서 생산한 절임배추와 무 주문예약 받습니다. 절임배추는 10kg에 21,000원, 무는 한 다발에 5,000원입니다. 11월 23일, 30일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장성호 씨와 강영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9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 표현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합 1:1~4 / 시 119:137~144
살후 1:1~4 / 눅 19:1~10

눅 8:4-8

식 당 봉 사 : 최경미 배삼순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조장형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연실 김명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김종락 박영신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자꾸만 제자리를 벗어나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이 늘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울긋불긋한 산야를 배경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들은 그 어떤 광경보다 아름답습니다. 주님,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며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기쁨, 보람과 나눔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경희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구명자 권미숙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윤수 박상호 김윤정 김인걸 문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애 김정은
 김정진 김종수 이순정 김혜권 박재림 김훈동 유경순 류준모 심호선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옥식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해경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송임희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임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양재성 임미심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이경남
 이광섭 이광용 형인순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용현 이정은
 이호원 임고운 임영 정경례 임승동 백혜숙 장재영 이재영 정연희
 정현모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임경진 주경진 이윤정 최종원 한규숙 한기택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홍복선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김진중 문금석 박홍재 방문성 백성래 신지수 신진식 변혜정 오규만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우원 옥귀희 이인태 조항범 오현정 한완식
 임정자 한준혜 홍정희 나ومی1,2 무명4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박해남 조항범

녹색꿈

김정진 김혜정 박호규 강영님 송형운 하미림 오미경 오자영 무명4

	장혜숙	백혜숙	오송경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이준림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이소순	서원국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곽혜자
	정경례	진정숙	안정숙	김혜권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방극숙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윤수진	김재광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서정순	송양경
	박혜경	조항미	최영혜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씨앗을 받으며

가을 뜨락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머언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여/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떻게 때만 물어 돌아왔는데/
 저리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당신은 마련하셨네/
 가을 뜨락에
 젊음이 역사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얽치었다

- 허영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주님만이 의지할 분이십니다. 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 이름을 높임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새날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추수감사 찬양제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혜경 권사	이혜수 선생 김대근 집사

11	영접위원	한상익 홍순구 조문규 심상숙 안홍숙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믿음으로 읽는 글

바람 부는 가을에 만나는 하느님

하루 종일 바람이 불었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가을을 느꼈다. 정겹게 따사로운 햇살 속에 부는 바람이 새삼 가을을 절감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을을 느꼈다는 것은, 촉촉한 일상을 살면서도 약간 한눈을 팔며, 하늘이 푸르다든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거리를 걷는 꼬마들과 눈이 마주친다든지, 혹은 그저 “하느님” 하고 불러본다든지 하여, 내 마음의 결이 달라진 채, 다시 일상을 만난다는 뜻이다. 이 느낌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 하나를 마음 깊이 숨겨둔 채 이 세상을 사는 것과도 같은데, 내가 가을을 느꼈다는 건 이렇게 내 마음의 틈새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요즘 나는 전혀 한눈파는 일 없이, 가을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아주 성실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거리가 보이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아니, 사실 여전히 창밖이 내다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읽기는 했다. 단지 확박한 느낌 속에, 무심히 창밖 정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없이, 시간의 흐름이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등에 무심한 채, 그저 책을 읽으며 글을 썼던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의 질감을 만져보지 못한 채 확박한 날들을 지냈다는 말이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영신수련 문헌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초대를 받았다. 평생 영신수련만 연구하고, 그 보급에 힘썼던 예수회의 노(老) 사제가 직접 가르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거라는 귀뜸과 함께. 망설이다 우선 와서 보라는 강한 권유에 이끌려 그 모임에 갔다.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을 기술하신 스페인어를 나는 잘 모르지만, 원전을 보면서 내가 알던 용어나 그 글귀의 의미를 찾아가는 수업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대학교 때, 친구들과 영어 성경 공부하던 때의 마음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따스한 바닷물 속에 잠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부드러운 담요를 두르고 아주 좋아하는 시를 읽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날 밤, 도대체 나를 감싸고 있는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했다. 그리고 영신수련이란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내가 누린 이 근거 없는 행복감이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풍성함” 앞에 모든 것을 멈추어야

했다. 그리고 멈추어서 아주 천천히 그 넉넉한 행복을 누렸다. 또한 그 넉넉함은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사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아주 깊은 내면의 울림으로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보니, 내 일상에 그런 풍성함을 본, 그러나 내가 소홀히 흘러보낸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지난주 학생들과 성체성사를 공부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와 함께 ‘사랑의 식사’(Eucharist)를 하자고 했다. 그날도 나는 교수회의에 쫓겨 시간이 없었는데, 아무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 부랴부랴 슈퍼마켓에 가서 치즈와 포도주스, 그리고 빵을 사서 교실로 뛰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나는 강의실 복도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복도에 가득하고 다른 교실에서 강의하던 교수들도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열다섯 명의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성스레 음식을 가져왔던 것이다. 물론 나는 성체성사가 교회의 기초 원리라고 가르칠 심산이었지만, 정작 하느님의 감작스런 이런 풍성함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세 신학자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의 하느님 아버지의 “풍성함(fecundity)”에 관한 가르침이 떠올랐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모두 행복해 했는데, 무엇을 느꼈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식탁의 풍성함이 참 좋았다. 매일 이렇게 수업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나는 마음이 멍멍해지면서, 또 한 번 하느님의 목소리를 느꼈다. 걸음을 멈추고, 나의 풍성함에 머물라는 그분의 목소리를 말이다. ...

오늘은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해졌다. 한 학생은 사무실에 찾아와 자기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 주며 자랑하고 갔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컴퓨터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기말 페이지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창밖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라고.

어쩌면 이번 한 달, 하느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자리는, 한눈을 파는 아이같은 마음에 깃드는 하느님의 풍요함인 듯하다. 바람 부는 자리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가을. 바람 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설 때, 내 마음에 조그만 틈새가 생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상 속에 마련해 두신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만난다. 오늘 하루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내게, 가을 속으로 걸어오라고 속삭인다.

- 박정은 수녀,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중에서